

주제어 : 뱀파이어, 불안, <오렌지 마말레이드>, 욕망, 주체, 청소년, 타자, 텔레비전드라마, 파국

텔레비전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나타난 타자의 의미와 주체의 불안

박상완*

<차례>

1. 들어가며
2. 타자에 대한 차별과 뱀파이어의 인간되기
3. 타자에 의한 공존과 청소년의 학생되기
4. 나가며

<국문초록>

텔레비전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뱀파이어와 청소년을 타자화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주체의 욕망 수행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뱀파이어와 청소년이 타자로서 그려지는 양상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뱀파이어는 흡혈을 포기함으로써 초월적 능력을 상실한 약화된 존재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되었던 인간과의 공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뱀파이어를 가축처럼 통제/관리하고, 법 적용에도 차등을 둔다. 이런 점에서 뱀파이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은유로 읽힐 수 있다.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포기한 뱀파이어에게 남은 것은 주체의 욕망을 욕망하며 인간되기를 꿈꾸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뱀파이어로 하여금 타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만든다.

반면 청소년은 학생되기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존재들이다. 청소년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뱀파이어의 타자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의 자기정당화 절차에 포섭되면서 뱀파이어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올바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인정절차에 돌입한다. 기성세대의 뜻에 따라 쓸모 있는 학생이 된 청소년은 언젠가 기성세대의 위치를 점유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반대로 학생이 될 수 없는 쓸모없는 청소년은 텔레비전드라마 밖의 현실에만 존재하게 된다. 결국 뱀파이어의 인간되기 실패와 청소년의 학생되기 성공은 타자화를 통해야만 존재론적 불안을 잊을 수 있는 주체의 파국적 상황을 보여준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경향 중 하나는 인간이 아닌 이물(異物)의 출현이다. 지상파 미니시리즈만 한정하더라도 <구미호 : 여우누이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49일>(2011), <아랑사또전>(2012), <구가의 서>, <주군의 태양>, <별에서 온 그대>(2013), <야경꾼 일지>(2014), <블러드>, <밤을 걷는 선비>,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2015), <푸른 바다의 전설>(2016) 등은 구미호, 귀신, 외계인, 뱀파이어, 인어 같은 이물이 등장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는 ‘환상’¹⁾이 그만큼 지금의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각각의 작품과 장르에 따라 환상을 활용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환상의 성행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출현하는 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오렌지 마말레이드>²⁾ 역시 유서 깊은 이물인 뱀파이어를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뱀파이어는 브람 스토커가 실존 인물 블라드 체페슈³⁾를 모델로 소설 <드라큘라>(1897)를 쓴 이후 지역적/

- 1) 이때의 환상은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18면)
- 2) 작가 문소산, 연출 이형민, KBS-2TV, 총 12회, 2015.5.15~2015.7.24.
- 3) 15세기 루마니아의 왈라키아 지방을 다스린 영주로 본명은 블라드 드라쿨레아(Vlad Draculea)로 알려져 있다. ‘말뚝에 박아 죽이는 블라드’라는 뜻의 블라드 체페슈는 적군을 잔인하게 처형한 그의 행동에서 만들어진 별칭이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포성·잔혹성과 달리 루마니아에서는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숭상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문화적 장벽을 초월해 가장 유명한 이형 캐릭터⁴⁾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근본적으로 뱀파이어는 흡혈이라는 행위⁵⁾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피와 관련된 매혹성⁶⁾으로부터 매력을 발산하는 존재다. 이러한 특유의 개성과 매력 때문인지 2010년대 이후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텔레비전드라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⁷⁾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장르적 특성 강화를 위해 뱀파이어를 소재화한다는 것이다. <뱀파이어 검사>가 “환상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부조리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기 위해 환상을 활용한다는 백소연의 지적⁸⁾을 확장시켜보면, 결국 이 작품들에서의 뱀파이어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거나,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는 등의 영웅적 행동을 하는 주인공에게 초월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요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이러한 작품들과 동일선상에 놓이지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초월성이 약화되어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뱀파이어를 그린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뱀파이어는 피를 마시지 않아 초월적 능력을 대부분 상실한 존재이고,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약자이다. 어째서 이런 약해진 뱀파이어를 호출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 4) 박미현은 이형 캐릭터를 ‘비(非)인간, 반(半)인간, 변종(變種)인간’으로 구분하고 뱀파이어가 반인간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반인간은 인간계와 또 다른 세계가 뒤섞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박미현, 『대중문화 콘텐츠 속 이형(異形) 캐릭터의 문화적 함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8면)
- 5) 뱀파이어(vampire)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 중 리투아니아어 ‘마시다’라는 뜻의 뱀프티(wempti)와 ‘신음하다’라는 뜻의 밤피티(wanpiti)가 어원이라는 주장은 흡혈이라는 행위로부터 뱀파이어가 상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장 마리니, 김희진역, 『뱀파이어의 매혹』, 문학동네, 2012, 22면 참조)
- 6) 장 마리니, 위의 책, 34면.
- 7) <뱀파이어 검사 시즌 1>(2011), <뱀파이어 검사 시즌 2>(2012), <밤을 걷는 선비>(2015), <블러드>(2015), <뱀파이어 탐정>(2016).
- 8)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 <뱀파이어 검사>와 <귀신 보는 형사 처용>을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7, 285~286면.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동명의 원작 웹툰⁹⁾을 각색한 작품이고, 초월성을 상실한 뱀파이어라는 설정은 원작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웹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원작 웹툰과 텔레비전 드라마는 기본 설정만 유사할 뿐 많은 점에서 다르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첫째, 새롭게 추가된 이야기(시즌 2)가 있고, 원작에서 학교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다수의 사건들이 대부분 생략되어 실질적으로는 남녀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사건만 그대로라는 점이다.¹⁰⁾ 둘째, 원작에서 최종적인 악녀라 할 수 있는 채린 등 주변 인물들이 삭제되었고, 마리·재민·시후·아라 사이의 삼각/사각관계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¹¹⁾ 셋째, 마리가 주인공인 원작과 달리 재민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9) 작가 석우, 네이버, 총 119화, 2011.2.12~2013.12.29.

10) 텔레비전드라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시즌 1(1~4회) : 뱀파이어 여고생 마리가 전학을 오고 인간 남고생 재민과 지하철에서 마주친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끌리지만, 재민이 뱀파이어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마리는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한다. 이 과정에서 마리의 소꿉친구 뱀파이어 시후가 전학을 와서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재민은 마리의 정체를 알고 잠시 혼란에 빠지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귀게 된다. 하지만 사고로 재민이 바다에 빠져 마리와 관련된 기억을 모두 잃게 된다. 시즌 2(5~9회) : 17세기 조선이 배경인 전생의 이야기이다. 성균관 유생 재민과 시후는 문무를 겸비한 청년들로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나눈다. 독사에 물려 위기에 처한 재민을 백정의 딸인 마리가 구해주게 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다. 한편 뱀파이어는 두 일파로 나뉘어져있는 상태인데, 마리의 아버지 백이가 수장인 흡혈족은 피를 마시지 않고 인간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반면 화사원의 원사가 수장인 흡혈귀 무리는 인간의 피를 마시며 인간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원사와 흡혈귀 무리는 중전을 납치해 태어날 왕세자를 뱀파이어로 만들려고 하지만 흡혈족과 인간의 저지로 실패, 모두 죽음을 맞는다. 이 과정에서 마리는 재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조선 왕실은 흡혈족의 공로를 인정해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로써 뱀파이어와 인간의 공존이 시작된다. 시즌 3(10~12회) : 시즌 1의 두 달 뒤이다. 재민과의 사랑을 통해 주체적으로 살기로 결심한 마리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정부의 공존 프로젝트에 참여, 인간과 뱀파이어의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한다. 기억을 잃은 재민은 마리를 배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억이 돌아오게 되고 전생까지 모두 기억하게 된다. 재민과 마리는 다시 사귀게 되고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게 된다.

11) 원작에서는 재민을 중심으로 마리와 아라의 삼각관계만 그려지고 시후는 채린과 사귀는 상태다. 반면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채린을 삭제함으로써 네 명의 남녀 주인공이 얽히고 얽힌 삼각관계를 구성한다.

재민의 시점에서 전달된다는 점이다.¹²⁾ 이 외에도 몇 가지 세부적인 설정이 달라지면서 원작에 비해 텔레비전드라마는 뱀파이어의 존재 양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¹³⁾ 이러한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작은 뱀파이어 여고생 마리를 중심으로 한 학창물이고 텔레비전드라마는 인간 남고생 재민을 중심으로 한 멜로드라마라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원작 웹툰이 분량이 제한적인 텔레비전드라마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변화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역할과 갈등 구도의 차이, 그로 인한 장르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이야기의 추가는 텔레비전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원작과는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새로운 소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차별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한다.¹⁴⁾ 즉 웹툰에서의 뱀파이어가 새로운 것이 없는 상투적인 설정이지만,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재해석된 뱀파이어는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12) 대표적으로 주인공이 바다에 빠지고 다른 주인공이 구하는 상황이 있다. 원작에서는 마리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재민이 구하지만,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재민이 사고로 바다에 빠지고 마리가 구한다. 전자의 경우 마리가 뱀파이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민에게 부정당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후자의 경우 우연한 사고이고 재민의 기억 상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시즌 2의 전생 이야기와 기억을 잃었던 재민이 현재와 전생의 기억을 되찾아 다시 마리를 사랑하게 되는 시즌 3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즌 2의 경우 피에 대한 공포증, 뱀파이어에 대한 혐오, 아버지에 대한 인정욕구,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갈등 등 재민은 수많은 내적/외적 갈등을 겪으며 이야기를 주도해나간다. 반면 마리는 철저히 이야기의 주변부에만 위치한다.

13) 원작에서는 뱀파이어가 돼지피를 마시고, 재민이 여성을 혐오하며, 뱀파이어 관리 기관과 과거의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대신 말로만 간단히 설명된다. 반면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뱀파이어가 대체피를 마시고, 재민이 뱀파이어를 혐오하며, 뱀파이어 관리 기관과 평화협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특히 뱀파이어 관리 기관과 평화협정이 구체화된다는 점을 통해 원작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뱀파이어의 차별 받는 상황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4) 박상완, 『텔레비전드라마의 기획과 구현 전략 - 2010년대 초반 미니시리즈를 대상으로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7~50면 참고.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약화된 뱀파이어는 초월적 타자에서 무능력한 타자로 자리 이동한 뱀파이어의 위상을 보여준다. 타자(他者)를 “타인으로서의 타인은 타아(他我)조차 아니다. 타인은 자아, 내가 아닌 것이다.”¹⁵⁾라고 말하는 레비나스의 관점에 따르면 타자는 그 어떤 성질과도 상관없이 단지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내가 아닌 존재다.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흥미로운 텍스트인 이유는 이와는 정반대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수용되지 못하고 타자가 되는 뱀파이어를 또 다른 키워드인 청소년이라는 존재와 함께 그린다는 점이다. 초반부에서는 뱀파이어의 차별받는 상황이 강조되고 후반부에서는 청소년의 존재성이 부각되어, 이 작품은 뱀파이어로부터 시작된 문제의식이 청소년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띤다. 이때 똑같이 타자에 위치해있던 뱀파이어와 청소년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뱀파이어는 낙오되지만 청소년은 구제된다. 나와 다른 것을 자아로 환원/동화하고자 하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서구의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써 주체와 타자의 문제를 거론하는 레비나스의 관점¹⁶⁾에서 보면, 뱀파이어와 청소년이라는 두 개의 기표, 두 개의 타자에게 서로 다른 자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라는 절대적 외재성을 윤리적 관계로 환원하려는 자아의 의식적인 주체화 과정에 균열이 가있음을 의미한다.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단순한 뱀파이어물도, 청소년드라마¹⁷⁾도 아닌

15)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161면.

16) 에마뉘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6면.

17) 일반적으로 청소년드라마는 “주요 인물이 청소년으로서 학교와 가정, 그 주변을 주요 공간으로 하여 전개되는 드라마”¹⁸⁾ 이상범, 『청소년드라마의 구조유형 연구 : 소재, 캐릭터, 인물관계도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면이라고 정의되며 그 안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생각, 정서, 성장 등이 그려진다. 하지만 텔레비전드라마의 장르에 명확한 기준과 개념 정의가 부족하듯이 청소년드라마가 과연 인물·소재·배경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청소년드라마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청소년이 주인공인 텔레비전드라마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작품은 지극히 먼 상상의 존재였던 뱀파이어를 우리의 일상에 위치시키지만, 그들을 일상에서 잘 지각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로 재해석한다. 청소년이 주인공이지만 그 안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세계는 학교가 아닌 사회적 권력의 장이다. 원작과 달리 청소년이라는 존재의 비중이 늘어나고 타자의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은 시즌 2가 추가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주체가 자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험의 전제조건인 시간과 타인이 필수적이다.¹⁸⁾ 시즌 2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뱀파이어 타자가 어떻게 존재해왔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청소년 타자의 선택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에 본고는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나타난 타자의 의미와 그들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체의 양가적 심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타자화된 뱀파이어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그들의 욕망을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타자화된 청소년에게 강요된 상황을 중심으로 그들의 선택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작품에서 그려지는 타자화가 타자에 대한 주체의 대응에서도 이뤄지지만 타자 스스로에 의해서도 수행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본론에서 분석하는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원작에는 없었던 텔레비전드라마 고유의 내용임을 미리 밝힌다.

2. 타자에 대한 차별과 뱀파이어의 인간되기

본래 뱀파이어의 기본 특성은 1)피를 마신다는 점, 2)살아있는 시체라는 점, 3)흡혈로 전염된다는 점이다.¹⁹⁾ 역사적인 변주를 거치면서 현대의

뱀파이어는 이와 더불어 강한 육체적 힘, 재생력, 변신 능력 등도 갖춘 초월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상상의 존재로서 뱀파이어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초월성은 그들이 인간 욕망의 현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뱀파이어에게는 이러한 특성들이 대부분 제거되어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에는 뱀파이어 특유의 초월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다. 시즌 2의 뱀파이어는 수십 명의 병사들을 혼자 상대할 정도의 괴력을 지녔고 아무리 칼에 찔려도 죽지 않는 말 그대로 불사의 존재였다. 하지만 시즌 1·3의 뱀파이어는 대부분의 능력을 상실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 그려진다. 물리 면 전염된다는 바이러스로서의 속성도 마찬가지다. 전염성은 시즌 2에서는 나타나나 시즌 3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시즌 2의 채민과 시후는 악한 흡혈귀 무리에게 물려 뱀파이어가 되지만, 시즌 1·3에서는 인간이 뱀파이어에게 물리면 뱀파이어가 된다는 설정이 없고 인간들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뱀파이어는 점차 약화되어 이제는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²⁰⁾만 남아버린,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초월성이 약화된 이유는 뱀파이어의 기본 특성인 흡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 인간의 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산 뱀파이어는 시즌 2의 원사과처럼 괴력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능력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후 그런 악한 흡혈귀 무리는 모두 멸종됐고, 살아남은 흡혈족은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 흡혈을 포기했다. 흡혈을 포기함으로써 뱀파이어는 인간보다 우월했던 능력들을 상실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공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20) 원작에서는 뱀파이어가 햇빛에 노출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간의 피를 마실 경우 이 약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후가 채민의 피를 마신 뒤 피부가 탄 모습이 그려지는 106화가 대표적이다. 반면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이런 특성이 처음부터 뱀파이어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18) 에마누엘 레비나스(2003), 앞의 책, 167면.

19) 장 마리니, 앞의 책, 15~17면.

문제는 인간과 뱀파이어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뱀파이어는 VCS(Vampire Control System)라는 뱀파이어 통제국의 관리 하에 놓여있다. 뱀파이어는 주거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지속적으로 행적을 보고해야 하며, 무엇보다 생존에 필수적인 햇빛 차단제 SPA(Sun Protection Ample)와 대체피를 VCS로부터 제공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뱀파이어가 생체권력(bio-pouvoir)²¹⁾에 포섭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VCS의 관리리는 매우 억압적이어서 시후와 같은 요주 인물의 경우는 관리 이상의 사찰과 감시를 받기도 한다.²²⁾ 즉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뱀파이어가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심각한 억압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공존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인정의 절차’,²³⁾ 즉 흡혈 포기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는 완전히 경계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우리’로 포섭되지 않은 ‘외국인’에 머물러있다.

역사적으로 뱀파이어는 정치 지도자, 기업가, 자유주의 정부 등에 대한 은유, 즉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며 그들의 고향을 빨아먹는 존재로 그려져 왔다.²⁴⁾ 하지만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의 뱀파이어는 정반대이다. 이 작품에서 뱀파이어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치/경제/계급 등

모든 면에서 언제나 약자였고 소수자였다. 그들이 이토록 타자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천적 요소 때문인데 그것은 작품 안에서 ‘종족’과 ‘신분’으로 설명된다. 애초에 뱀파이어의 초월성이 사라지지 않고 다만 약화된 것은 그들에게 흡혈 본능이 잔존해있기 때문이고,²⁵⁾ 그것은 근본적으로 뱀파이어가 인간과는 다른 종(種)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의 뱀파이어는 인간과 외양만 같을 뿐 그 속의 신체기관이 전혀 달라 인간의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별개의 종족이다. 시즌 2에서는 종족만이 아니라 신분에 의거한 타자화가 그려진다. 시즌 2에서 재민과 마리는 종족의 차이 이전에 양반과 백정이라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또한 시즌 2에서 선한 흡혈족은 반촌의 노비들이고, 악한 흡혈귀 무리도 양반이 아닌 평민들이다. 반면 인간은 그 외의 모든 신분에 위치하며 특히 양반과 왕실과 같은 기득권은 오로지 인간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선천적 요소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과연 누가 진정으로 괴물 같은 존재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인간답지 않은 인간과 오히려 더 인간다운 이물의 대비를 통해 인간성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다.²⁶⁾ 작품 안에서 마리가 단지 뱀파이어라는 이유로, 혹은 백정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상황들은 일례에 불과하다. 이 작품에서 선천적인 요소로 인해 타자화된 뱀파이어가 겪는 차별의 양상은 초반부 뱀파이어 범죄를 보도하는 아래 장면들에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려진다.

21) 본고의 ‘생체권력’은 푸코의 개념을 따른다. 푸코는 수도원과 군대, 시공간의 분할을 통한 개인의 신체 통제로 근대를 읽어낸(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203~235면) 후에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정치/경제체제와의 관련성에서도 생체권력을 논했다. 그에 따르면 한 나라의 부유화가 임계점을 넘어 상호적인 부유화를 통해서만 사회가 유지되는 세계화가 요구되었을 때 신자유주의가 시작된다. 신자유주의 사회는 지속적인 부유화를 위해 구성원 상호 간의 경쟁을 동력으로 삼게 되는데 인간의 신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생체권력은 신체 자체의 재료화뿐만 아니라 신체에 관한 담론까지 포함한다.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012, 86~87, 18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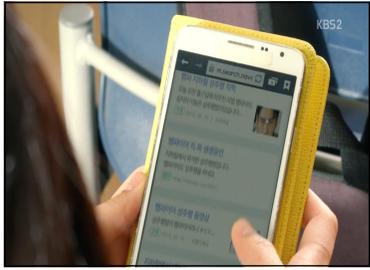
22) 시후의 부모는 인간을 구하려다 실수로 다른 인간을 죽게 해 영구안치라는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인간을 혐오하게 된 시후는 인간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로 인해 VCS의 특별 관리대상이 되어 SPA와 대체피의 제공을 최소한도로 조절 받게 된다.

23) 기욤 르 블랑, 박영옥 역, 『안과 밖』, 글항아리, 2014, 89면.

24) 장 마리니, 앞의 책, 23~24면 참조.

25) 뱀파이어의 흡혈 본능은 마리가 처음 본 재민에게서 달콤한 향기를 느껴 계속해서 목을 물려하고, 마리의 동생이나 어린 시절의 시후처럼 자제력이 낮은 뱀파이어가 종종 인간을 습격하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마리나 마리의 동생은 끝내 피를 마시지는 않으므로써 뱀파이어 본연의 피물적인 능력을 지니지는 못한 채 인간보다 뛰어난 재생력정도만 갖추었다. 반면 시후의 경우 대체피를 거부하고 동물피를 마심으로써 보통의 인간과 뱀파이어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체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피가 뱀파이어의 초월성의 근원임이 재확인된다.

26)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야담(野談) 수용 과정 연구」, 『인문학연구』 제91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08~109면 참조.



< 사진 1 >



< 사진 2 >

전학 첫 날 마리가 탄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남자는 마리와 같은 뱀파이어였다.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자 눈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정체를 드러낸 남자의 동영상은 <사진 1>처럼 인터넷을 통해 삼시간에 퍼져나가고, <사진 2>처럼 그의 검거 장면은 도심 대형 스크린을 통해 속보로 전파된다. <사진 1>에서 여고생들은 뱀파이어 동영상을 보며 “징그럽다, 더럽다.”고 말하고, <사진 2>에서는 아래와 같은 앵커의 멘트가 함께 나온다.

“속보입니다. 뱀파이어 성추행 사건 속보를 전해들은 시민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경 전철에서 여성 회사를 성추행한 뱀파이어 이모 씨가 전철 수사대에 의해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VCS의 결정에 따르면 현장에서 검거된 뱀파이어 이모 씨는 안치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치형이 어떤 처벌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뱀파이어에 대한 강력한 사회 격리 조치로 전해집니다. 뱀파이어가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로 앞으로 뱀파이어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줄 인용자)

- <오렌지 마말레이드> 1회(21분 40초~22분 20초)

뱀파이어 남성이 저지른 범죄는 지하철 성추행, 즉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다. 물론 성추행이 가벼운 범죄는 아니나 이것이 과연 속보로, 그것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범죄인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사거리가 속보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높은 주목도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청자는 속보를 보며 일반 보도보다 더 큰 신체적/심리적 반응을 보이기²⁷⁾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면 시청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담론을 주도하기 위한 속보의 취사선택이 가능해진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속보는 이에 해당된다. 뱀파이어 성추행 사건이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앵커 멘트의 말미에 있듯이 뱀파이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나아가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속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 혹은 편견을 확산시키는 인간의 횡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안치형’이라는 처벌이다. 안치형은 작품 안에서 “금지된 능력을 사용한 뱀파이어에게 가해지는 VCS 최고형”으로 설명되는데, 쉽게 말하면 무기징역형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검거되었다는 말과 <사진 2>의 평이한 검거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가 뱀파이어로서의 금지된 능력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는 적다. 아니, 그 이전에 흡혈하지 않는 뱀파이어는 초월성이 약화되어 사용할 금지된 능력이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만약 정말로 VCS의 주장대로 이 뱀파이어가 혹시라도 금지된 능력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성추행은 그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도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진 1>처럼 신상이 노출된 뱀파이어는 ‘징그럽고 더러운 성추행범’이 되어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는다. 즉 이 뱀파이어에게는 ‘인간도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만 뱀파이어는 더더욱

27) 임소혜·김연수, 『뉴스의 실시간성과 유인가가 시청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생리심리적 반응과 뉴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9권 제2호, SBS문화재단, 2011, 44~84면 참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관념이 적용된다. 뱀파이어는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사회적 약자이고, 약자이어야 하는 이주자²⁸⁾이기 때문에 법과 대중의 차별적인 심판²⁹⁾을 받는 희생양인 것이다. 타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과 법 준수를 요구하는 폭력적인 사회의 윤리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주지하듯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흡혈은 뱀파이어의 종족적 본능이고, 이것이 존재하는 한 초월적인 능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듯이 뱀파이어도 뱀파이어로 태어난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VCS는 바로 이 부분을 통제한다.³⁰⁾ 이유는 간단하다. 뱀파이어의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³¹⁾ 달리 말하면 바로 그 선천성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은 뱀파이어를 타자라는 카테고리에 놓고 지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중이 안치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뱀파이어 감식법을 오로지 VCS만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통제에 의해 사실 대중은 누가 뱀파이어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대로 VCS는 뱀파이어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에 대한 처벌 모두를 담당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진실 조차도 은폐시킨다. 앞서 <사진 1>에서 여고생들의 “징그럽다, 더럽다.”는 말이 성범죄자로서의 남자가 아닌 뱀파이어로서의 괴물을 보다 의미한다면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결국 뱀파이어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유포에 VCS로 상징되는 법과 공권력, 그리고 국가가 결정적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중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동조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타자화되었던 여러 소수자 집단들, 이를 테면 이 민족, 유색 인종, 히스테리 환자, 여성들처럼 권력을 지닌 주체에 의해 뱀파이어가 의도적으로 타자화된 것이다.³²⁾ 그리고 그들이 타자로 규정되었던 범주를 넘어설 때 강력한 단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뱀파이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차별에 저항하는 뱀파이어가 있었다. 시즌 2의 악한 흡혈귀 무리의 수장인 원상구의 역모³³⁾가 그것이다. 조선 시대 미용 관리센타내지 사교장인 화사원의 주인이자 상단의 대행수인 원상구는 “백성의 고향을 짜내는 이 나라 조정의 탐관오리들이나 피를 빨아먹는 우리들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더냐?”(8회)며 회임한 중전을 납치, 태어날 세자를 뱀파이어로 만듦으로써 뱀파이어가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녀의 시도가 인간과 뱀파이어의 위치 바꾸기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뱀파이어에 의해 저지된다는 점이다. 원상구의 목표는 뱀파이어와 인간의 공존이 아니라 뱀파이어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두 종족의 경계를 해체하지 않고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상구의 역모를 알게 된 흡혈족과 인간은 합심해서 그녀를 제거한다. 인간

28) 안승범·조한기, 「자기 밖의 삶으로 읽히는 뱀파이어의 다른 양태들 -<드라큘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렛미인>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24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120~125면 참조.

29) 범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가는 법학 분야에서도 논란인 사안이다. 이는 여러 실험 및 통계 결과가 변수 설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세상 기대 심리’(공정한 사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믿음)가 처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범죄자/판단자의 지위 및 범죄의 성격에 따른 처벌의 상이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해경,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15, 53~69면을 참고할 것.

30) 더불어 VCS는 뱀파이어의 몸에 심은 칩을 통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능력을 사용할 시 즉각 출동해 체포한다. 이때의 능력에는 괴력과 같은 초능력에서부터 단순히 눈빛이 변하며 정체가 드러나는 사소한 능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31) “타자에 대한 잔인함과 구별 짓기는 개인에게 다칠지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의 방어 중의 하나이다.” (박선영,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정신분석적 고찰』,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제18집, 한국라강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61면)

32) 특정 타자에 대한 혐오는 개인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메시지에 의해 배양된다. (헬렌 조페, 박중연·박해광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147면)

33) 작품에서 표현된 것처럼 ‘역모’라고 했으나 후술했듯이 원상구의 입장에서는 ‘혁명’이다.

은 차치하더라도 같은 뱀파이어에 의해 원상구의 시도가 저지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흡혈족 역시 백정으로서, 뱀파이어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흡혈족은 차별받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타자의 위치에 머무른다. 원상구의 시도가 “신과 인간 모두를 상대로 홀로 맞서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차원”³⁴⁾의 뱀파이어를 상기시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지 같고 다른 종족/신분에 맞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서 부정됨으로써 원상구의 저항성과 영웅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원상구의 시도는 실패한다. 저항을 포기한 타자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영원한 타자가 되어 주체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될 수 없어 인간 흉내를 내는 마리의 아버지 백승훈의 인간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사진 3>처럼 인간의 욕망을 욕망하는 뱀파이어다. <사진 3>은 백승훈이 축구를 보며 먹지 못하는 치킨의 냄새를 맡는 장면이다. 그는 비록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못하지만 인간 흉내를 내며 인간의 쾌감을 느끼고자 한다.



< 사진 3 >

이는 타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속화된 타자 뱀파이어는 끊임없이 인간 주체되기를 시도하지만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종족이나 신분 같은 선천적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둘째, 그 차이를 타자화의 근거로 삼는 주체가 있으며, 셋째, 그런 주체의 시도를 뱀파이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뱀파이어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되기를 시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부조리한 타자화의 양상이 감춰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치킨 냄새를 맡는 뱀파이어가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치킨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과 대체피로 충족되지 않는 진짜 피에 대한 갈구이다. 그러한 스스로의 정체성과 대면하는 매순간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타자성을 자각하지만, 윗세대가 그러했듯 저항대신 순응을 선택하게 된다. 그들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인간 주체의 타자화 전략이다.

뱀파이어는 인간과 선천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차이로서 수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그들 스스로에 의해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다른 뱀파이어를 차이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그들 스스로 타자의 위치를 선택했다는 합당한 변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이 시즌 2를 통해 갖춰진 뒤에 그려지는 현재 뱀파이어가 처한 차별적인 상황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모든 면에서 차별과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이 모두 뱀파이어에게 돌려지기 때문이다. 흡혈을 하지 않아 초월적인 능력을 포기한 것은 인간과 뱀파이어 쌍방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 약속을 깨는 순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 역시 협정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처럼 부조리한 현실이 뱀파이어의 탓으로 귀결되면서 VCS로 상징되는 법, 제도, 국가 같은 거대 권력은 후경화되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은 방관만 하면서 문제적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 모두를 뱀파이어 개인과 인간 대중에게 일임해버린다. 최소한의 감시와 최대한의 처벌을 수행하는 국가,³⁵⁾ 그리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국민의 관계가 암시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결국 타자화된 뱀파이어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프로메테

34) 장 마리니, 앞의 책, 103면.

35) 미셸 푸코(2012), 앞의 책, 219면.

우스적인 저항의 포기 이후 타자를 수행하게 된 그들은 신적 질서와 법적 질서 모두에서 배제된 ‘호모 사케르’³⁶⁾이며, 타자화를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체의 폭력적 욕망이 만들어낸 단순한 생명 조에(zoe)에 불과하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의 뱀파이어는 선천적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 안에는 나와 다른 타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체의 초월이 ‘나’와 다른 ‘타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³⁷⁾ 뱀파이어에 대한 인식은 그들을 별개의 존재이되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그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차별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300년이 지나도록 편견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되레 부추겼던 VCS와 인간의 태도에서 미루어볼 때, 뱀파이어에 대한 타자화는 타자를 통해야만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의 이기적인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3. 타자에 의한 공존과 청소년의 학생되기

앞 장에서 언급한 뱀파이어의 인간되기 실패는 작품 안에서 주인공들이 아닌 주변 인물들에게서만 나타난다. 반대로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의 학생되기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성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타자로서의 청소년이 타자임을 자인(自認)함으로써 주체의 승인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는 타자의 비판적 상황을 감추고 희망적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또 다른 타자화를 시도하는 주체의 기

만전술이 될 수도 있다. 뱀파이어와 달리 청소년³⁸⁾은 타자에서 주체가 될 가능성이 제시되는 한편 또 다른 타자화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기표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재민, 마리, 시후라는 세 명의 청소년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중 뱀파이어인 마리와 시후는 스스로 타자화를 선택한 기존의 뱀파이어들처럼 통제된 공존을 선택한다. 시즌 3의 VCS가 추진하는 ‘공존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조선시대에 맺어진 1차 평화협정의 만료 기간인 2017년이 다가오면서 VCS는 2차 평화협정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한다. 그들은 지금까지가 “뱀파이어가 인간과 공존이 가능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10회)이었다고 말하고, 공존 프로젝트 1단계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뱀파이어 10명의 신원을 공개하며, 마리와 시후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때 마리와 시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마리는 바다에 빠진 재민을 구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치형을 받았다가 간신히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사면을 받는다. 시후의 사연은 좀 더 복잡하다. 시후는 크레인 사고에서 아이와 재민을 구하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고 안치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햇빛에 노출,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출동한 VCS에 의해 다시 살아나게 되고³⁹⁾ 역시 안치형 위기에서 정상참작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억지스러운 이유로 이뤄진 처벌과 사면 뒤에 VCS는 조선 조정이 17세기 뱀파이어들에게 흡혈 포기를 원했듯이 마리와 시후에

3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삶』, 새물결, 2008, 82면.

37) 에마뉘엘 레비나스(2003), 앞의 책, 193~194면 참고.

38) 본고에서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중학교 입학 연령인 만 12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만 18세까지의 생물학적 인간을 의미한다. 이들은 “방송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 관련 규정』, 2011, 325면)처럼 공적인 차원에서 특히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39) ‘생살여탈권’이란 ‘의지와는 무관하게 죽게, 혹은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삶의 의지』, 나남, 2004, 152면) 죽고자 했던 시후가 죽지 못하고 살아나는 것은 이미 그가 자신의 신체 통제권을 상실한 타자라는 점, 더불어 타자의 몸마저도 지배하는 생체권력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 신분 공개를 제안한다.

근본적으로 마리와 시후는 이미 사면을 받은 상태여서 신분 공개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CS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랑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마리는 재민과의 종족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시후는 그런 마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신분 공개에 동의한다. 진정한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동화 같은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타자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 인간과 뱀파이어의 차별이 없는 세계가 암시된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마리의 신분 공개를 보고 용기를 얻은 뱀파이어 연예인들이 이른바 ‘뱀밍 아웃’을 하면서 끝이 난다. 즉 공존 프로젝트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자화된 뱀파이어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깃들어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타자에 의한 스스로의 타자화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회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궁핍함과 비참한 얼굴을 대면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⁰⁾ 하지만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의 양상은 정반대다. 타자가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주체가 타자에게 마조히즘적 폭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자의 희생에 의해서 주체의 안정이 확보된다는 인식, 주인공 재민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잘생긴 외모의 모범생이자 운동도 잘하고 인성까지도 훌륭한 재민이 남들과 다른 것은 뱀파이어에 대한 혐오 심리가 유별나다라는 점이다. 그런데 재민이 뱀파이어를 혐오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 바로 어머니가 뱀파이어와 재혼했기 때문이다.⁴¹⁾ 음악 교사인 어머니의 영향

으로 어린 시절부터 기타를 쳤던 재민은 그 이후로 기타 연주를 관두고 어머니와도 따로 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모와의 관계, 정확히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유아기적 인식⁴²⁾은 다른 모든 측면에서의 완벽함과 대비되면서 재민의 청소년으로서의 미성숙함을 보여준다.

중요한 건 재민이 뱀파이어 마리와 사랑,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되는 타자의 희생을 계기로 다시 기타를 치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한다는 점이다. 재민은 우연히 마리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전에 했던 밴드부 활동을 제안하지만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마리는 재민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지만 이내 별다른 계기 없이 마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밴드부 활동을 하게 되고 재민 역시 다시 기타를 치게 된다. 이들이 결성한 밴드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재민의 어머니가 있는 시골 학교에서 공연을 펼치고 이때부터 재민과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다시 재민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것과 달리 어른들의 눈에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일 뿐이다.⁴³⁾ 특히 어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음악적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다. 이런 인간 청소년 재민의 가능성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뱀파이어 청소년 마리가 한다. 마리는 사랑을 통해 재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즉 어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밴드부 활동을 통해 재민에게 성공도 안겨준다. 즉 마리의 희생을 통해 재민은 개인적·사회적 성공을 성취하고 성인으로서 인정받는다.⁴⁴⁾

40) 에마뉘엘 레비나스,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129면.

41) 원작에서의 재민은 뱀파이어도 혐오하지만 여성을 더 혐오한다. 재민의 어머니 오로라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떠난 뒤 재민의 아버지와 결혼해 재민을 낳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옛사랑이 그리워진 그녀는 이혼을 하고 재민까지 버린 뒤 옛 애인인 뱀파이어와 재혼한다. 이처럼 재민은 친어머니에게서 버림받고 입양된 집에서는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다. 반면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재민의 어머니가 뱀파이어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재민을 버렸다는 설정이 삭제되었다.

42) S. 프로이트, 오태환 역, 『정신분석입문』, 선영사, 1997, 324~330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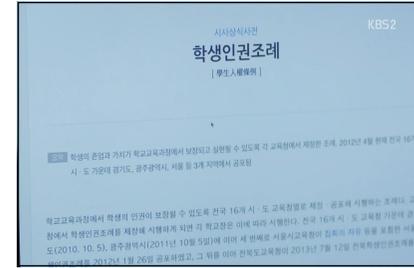
43) 재민이 재능을 보이던 기타를 더 이상 치지 않자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오렌지 마말레이드’ 밴드가 뱀파이어 멤버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때 기획사 사장이 재민에게 마리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지점에서 뱀파이어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청소년들이 어찌서 해냈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생긴다. 17세기 원상구는 저항을 선택했지만 끝내 전복을 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 의해 허울뿐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차별적인 상황이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 사이 차별받는 뱀파이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악화되어 그저 인간의 욕망을 욕망하는 생명체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상황이 청소년들에 의해 일거에 희망적인 미래로 바뀌게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 사이에는 뱀파이어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상황이 직접적으로 그려진다. 재민을 좋아하던 아라는 시후와 사귀게 되고, 마리를 배척하던 학교 친구들도 결국은 마리를 인정하게 된다. 정리하면, 청소년이라는 기표 안에서는 최종적으로 뱀파이어가 타자를 의미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의미를 논구하기 위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⁴⁴⁾이다. 시즌 3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마리는 희망고등학교 학생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마리의 퇴학을 요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다.

44) 시즌 2도 마찬가지다. 재민은 병조판서의 아들이나 무장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게 피 공포증이 있다. 무장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던 재민을 각성시키는 존재가 마리다. 백정의 딸 마리를 사랑하게 된 재민은 마리의 조언을 듣고 눈을 가리고 검술 연습을 해 피 공포증을 극복하고 흡혈귀 무리를 물리치는 등의 활약을 보여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된다.

45)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공포되었고,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에서 공포해 시행 중이다. 지역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두발 및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같은 내용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 참조).



< 사진 4 >



< 사진 5 >

<사진 4>는 이런 상황에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재민이 밴드부 친구들을 설득, 학부모들에 대한 대항 논리로써 학생인권조례를 검색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사진 5>는 재민과 친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장면이다. 결국 재민과 친구들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설득해 특별반을 편성, 마리의 퇴학을 막는 성과를 얻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아라 부 부모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뱀파이어 학생들 때문에 학교가 도무지 안정이 안 되고 너희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겠냐?

재민 최종하지만 학습권이 문제가 된다면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학생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어요. 한시후도 뱀파이어지만 우리와 똑같은 학생입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학생이지 않습니까?

아라 학생인권조례도 찾아봤어요. 학교와 선생님들은 소수자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줄 인용자)

- <오렌지 마말레이드> 12회(28분 30초~29분 16초)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어른들의 말에 대해 재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학습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수의 학습권을 위해 소수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아라 역시 뱀파이어가 돌밖에 없다면, 그런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어린청소년, 학교학생, 학생-학생 등 여러 상황에서 약자/소수자에 위치하게 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 의미 있는 법령이다. 하지만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지속적인 보완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으며,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지역 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의 선출에도 학생들은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자칫 어른들이 만든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몇몇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역시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가 선출한 교육감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이 ‘조금 넓혀준’ 허용된 틀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⁴⁶⁾

재민을 비롯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웠을 때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못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어른들이 자기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보편인권은 법 앞에서 평등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별거벗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근거도 없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역설이 초래된다. 우리가 ‘순수하게’ 보편인권의 담지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게 된다.⁴⁷⁾

학생인권조례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인용문처럼 그것의 존재의 근원은 인권 상실이다. 이는 법이 법을 위해 존재 의미를 갖는 형국이다. 즉 헌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학생을 학생인권조례가 보호하게 되고, 학생인권조례의 보호를 받으면서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다. 여기서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의무 역시 부여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마리를 도운 청소년들이 학습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특별반에 함께 편성되어 다른 학생들의 편견에 맞서야만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 양상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연 청소년이 학생인가?’라는 중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이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본래 청소년은 생물학적인 10대(teenager)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그러나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의 청소년은 사회학적인 학생(student)이 되고자 한다. 이 청소년의 학생되기를 통해야만 차별

46)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의 안타까운 존재성은 왜 그것이 존재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주 45)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표현의 자유, 개성의 실현, 사생활의 보장 등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되는 기본 권리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기본권이 유독 학생들에게는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물론 법은 실효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문화적 방벽 기능도 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7)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도서출판 여이연, 2011, 44면.

받지 않을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고 마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생되기가 시작되는 지점과 승인되는 지점에는 어른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청소년은 학생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은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생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정체성이 학생으로 전환되고 국한될 때 청소년이라는 선천적/생물학적 기표는 ‘쓸모’의 측면에서 재해석된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은 전통적인 ‘쓸모’를 보여주는 말이다. 성숙한 성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가 결국은 과거의 지식을 알게 되는 행위라고 했을 때 이는 다시 기존 질서의 습득을 통한 성숙함의 획득·미성숙함의 탈피라고 환원된다. 공부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학생되기는 미성숙을 무지(無智)로 보는 관점이었다. 이보다 최근의 ‘쓸모’도 있다. 바로 밴드⁴⁸⁾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통한 사회적 성공이 그것이다. 마리와 재민을 비롯한 청소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⁴⁹⁾ 물론 중간에 탈락하나 이들은 길거리 공연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자신들을 전시해 대중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이는 과거의 청소년이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면, 지금의 청소년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상의 다양한 쓸모를 지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1인 기업, 청년 창업, 벤처 대학생 같은 말처럼 이제는 10대 청소년에게도 사회적/경제적 효용성이 요구되고,

48) 원작에서도 밴드부가 등장하지만 텔레비전드라마에서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다거나 길거리 공연을 하지 않는 동아리 활동으로만 그려진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삽입은 실제 현실에서의 유행을 반영한 측면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사회적/경제적 성공으로 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10회에서부터 기획사 사장의 스카웃이 먼저 시도되고 오디션 프로그램은 밴드의 실력을 검증하는 후속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49) “<슈퍼스타 K>가 진짜로 뽑는 것은 심사위원이라는 ‘어른’의 지도와 텔레비전을 보는 ‘대중’의 취향에 맞춰 자신의 음악 개성을 열심히 바꿔가는 젊은이다.” (문강형준, 『감각의 제국』, 북노마드, 2015, 147~148면)

이때의 미성숙은 무용(無用)이다.

이것이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통해 수행되는 청소년에 대한 이데올로기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에 머무르지 않고 쓸모 있는 무언가라는 정체성을 지녀야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또 다른 의무도 지게 되면서 스스로를 쓸모 있는 주체로 인식하는 순환의 과정에 놓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은 능력과 동일시된다.⁵⁰⁾ 하지만 역시 청소년이 청소년일 수 있었던 연령이라는 선천적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마치 뱀파이어의 선천성이 무시되듯이 연령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에게 쓸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은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청소년이 진짜 청소년이 아니라 쓸모를 인정받음으로써 언젠가는 타자화를 주도할 예비 집단으로 상상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른, 혹은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다 쉬운 표현이 될 것이다. 재민과 마리는 언젠가 어른이 될 것이고, 청소년 시기부터 쓸모를 획득했기에 그들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은 어른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세계의 부조리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순응했다. 그런 점에서 재민과 마리는 어른들의 욕망이 투사된 가상의 존재, 어른들이 그러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청소년상을 재연해내는 존재들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지만 결국은 세계와 타협하는 청소년, 한마디로 말해 살부의를 포기한 청소년은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염원 그 자체다.

그래서 뱀파이어의 인간되기와 청소년의 학생되기의 의미는 다르다. 전자가 타자의 주체되기라면 후자는 어떤 생명체의 타자되기라고 할 수 있고, 전자는 실패하지만 후자는 성공한다. 청소년이 학생이 됨으로써 그들에게는 각종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주어진다. 그

50)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19면.

쓸모의 압박은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청소년들이 고민 없이 받아들여듯 자연스럽게 주입된다. 쓸모 있음으로 인해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점이 암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뱀파이어가 선천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선천성을 거부하고 학생이 된 청소년에게 작품이 암시하는 것처럼 밝은 미래가 올 것인가는 미지수다.

남은 문제는 시청자다. “독자는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역사적 주체이며, 이들의 다양한 수용과 해독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자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협상 과정”⁵¹⁾이라는 지적처럼 텔레비전드라마의 시청자 또한 작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조정하는 재사회화를 경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생되기가 실제 청소년 시청자와 어른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주인공인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실제 청소년이 얼마나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⁵²⁾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품에 그려진 타자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의 측면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무정체성에 가까운 청소년이라는 기표에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부여되면서 유표화된 기표로서 청소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

재라는 것과 그 미성숙을 무지/무용 등으로 의미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다. 그럼으로써 실제 현실에서의 쓸모가 없는 청소년 - 이를 태연 학교를 떠나 학생이 되지 못한 청소년- 은 성추행범 뱀파이어처럼 발언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소외되기 때문이다. 소위 비행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현실의 그들은 헌법도, 학생인권조례도 보호하지 않는 곳에 놓여있다. 또한 그들은 재민/마리 같이 구제와 쓸모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텔레비전드라마 안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뱀파이어와 그렇지 못한 뱀파이어가 나뉘듯, 텔레비전드라마라는 문화 권력 안의 청소년이 있고 밖의 청소년이 있다. 텔레비전드라마 안에 담기지 못하는 청소년은 쓸모없는 잉여로 전락한다.

결론적으로 <오렌지 마말레이드>를 통해 수행된 것은 단순히 매혹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이나 욕망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도 아니다. 내 세계의 지속을 위해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배척하거나 포용하는 과정에서 숨겨지는 주체의 존재론적 두려움이 본질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표출”로 괴물을 파악한 프랑코 모레티의 말처럼, 어쩌면 사실은 지금까지 공고히 지켜온 질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낀 주체가 ‘미래 없음’⁵³⁾을 잊고 자족하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가 뱀파이어이고 청소년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뱀파이어와 청소년은 타자의 주체되기 실패를 관람하며 우월감을 획득하려는, 하지만 불가능한 주체되기에 자신도 포섭되어 있어 끊임없이 또 다른 타자를 상상함으로써 존재론적 불안을 봉합하고자 하는 주체의 양가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51) Shaun Moores, *Interpreting Audiences: The ethnography of media consumption*, Sage, 1993, p. 35.

52) 최근에 이뤄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9세~18세 청소년들의 일평균 텔레비전 이용량은 69.7분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48.1분이다. 장르적으로 보면 오락/예능이 45.4%로 가장 많고, 드라마/영화가 21.9%로 그 다음이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드라마/영화 시청시간은 일평균 15분 내외이다(김은미 외,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실태 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48~52면 참조). 이는 청소년이 텔레비전을 즐겨보지 않는다는 근거는 되지만 텔레비전드라마 시청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실제로 청소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는 스마트폰으로, 이용 시간은 일평균 208분이며, 이 중에서도 동영상 같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이용 시간이 55.3분(26.6%)으로 가장 많다(김은미 외, 같은 책, 65~67면). 이처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텔레비전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텔레비전드라마의 수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53) 문강형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더 이상 진정 유의미한 역사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이미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희망의 목표도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좌절,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 없다는 그 절망”이라는 디스토피아적 감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20면)

4. 나가며

뱀파이어는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타자성을 구현”⁵⁴⁾한 존재다. 그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의 교차점에 놓여”⁵⁵⁾있기 때문이다. 비가역적 시간계 속에 놓여 언제나 삶의 환희와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는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은 두 가지일 것이다. 개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와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그것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뱀파이어와 청소년을 통해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이를 재해석하는 작품이다.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뱀파이어는 흡혈을 포기함으로써 초월적 능력을 상실한 약화된 존재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되었던 인간과의 공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뱀파이어를 가축처럼 통제/관리하고, 법 적용에도 차등을 둔다. 이런 점에서 뱀파이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은유로 읽힐 수 있다. 뱀파이어가 처한 차별적인 상황은 과거에서부터 노정된 것이었다. 17세기 조선에서 뱀파이어는 이런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포기했다. 영속화된 타자로서 뱀파이어는 주체의 욕망을 욕망하며 인간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타자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만들 뿐이다.

반면 <오렌지 마말레이드>의 청소년은 학생되기를 시도하고 성공하는 존재들이다. 인간/뱀파이어 청소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뱀파이어의 타자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청소년은 학생인권조례로 상징되는 기성세대의 자기정당화 절차에 포섭되면서 뱀파이어가 그러했듯 사회의 올바른 일원이 되기 위한 인정절차에 돌입한다. 청소년의 학생되기 성공은 또

다른 타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성세대가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두려움의 양가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의 뜻에 따라 쓸모 있는 학생이 된 청소년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위치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학생이 될 수 없는 쓸모 없는 청소년은 텔레비전드라마 밖의 현실에만 존재하게 된다.

텔레비전드라마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예술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가 일상의 안정된 시공간에 놓여있다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바쁜 젊은 세대가 텔레비전과 일상을 소비할 수 없게 된 지금, 텔레비전드라마가 더욱 보수화되는 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나 나이가 들 수밖에 없고, 바쁜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안정된 일상을 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도 텔레비전과 텔레비전드라마가 지금처럼 선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지 차별받는 타자가 존재하고, 모든 기성세대에게 청소년기가 있었듯이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그려진 뱀파이어와 청소년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 예로 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주장도 본고의 논의와 상관성이 있다. 성인의 나이 규정과 그로 인한 선거권 제한의 핵심 근거는 냉정히 말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 견해를 지니기 어렵다는 것, 다른 하나는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배태되는 담론들이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정치적 발언 금지, 집회 참여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이 그것이다. 선거권 연령 조정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근거의 적절성을 떠나, 과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도 타자화는 아닌가 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뱀파이어는 20세기 말을 지나면서 주체로서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결핍을

54) 장 마리니, 앞의 책, 205면.

55) 장 마리니, 앞의 책, 217면.

직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욕망의 완성을 꿈꾸었음에도 욕망이 충족될 수 없음을 깨달은 인간의 자기반성에 다름 아니었다. 그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뱀파이어는 소비되기 시작했다. 젊고 잘생긴 모습으로 사랑의 대상이 된 뱀파이어는 문화 주체로 자리매김한 청년 세대의 낭만주의적 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가 위치하는 것은 그 대척점이다. 이 작품에서 더 이상 뱀파이어와 청소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타자에 대한 것과 타자에 의한 것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체의 욕망만 부각된다. 그렇다고 그 의미가 퇴색하지는 않는다. 더 이상 흡혈을 하지 않아 초월적인 능력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본능은 남아있어 언제든 나를 해칠지 모르는 뱀파이어, 아직은 미성숙하고 그래서 길들일 수 있지만 언젠가 내 자리를 차지할 청소년. 이런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의 양가감정을 직시한 주체는 자기반성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확인케 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문소산 극본, 이형민 연출, KBS-2TV <오렌지 마말레이드> 영상물.

2. 단행본

기욤 르 블랑, 박영옥 역, 『안과 밖』, 글항아리, 2014.

김은미 외, 『청소년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 실태 분석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_____,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_____, 『감각의 제국』, 북노마드, 2015.

로즈매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앎의 의지』, 나남, 2004.

_____, 심세광 외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012.

에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_____, 양명수 역, 『윤리와 무한』, 다산글방, 2000.

_____, 서동욱 역,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3.

임옥희,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도서출판 여이연, 2011.

장 마리니, 김희진역, 『뱀파이어의 매혹』, 문학동네, 2012.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삶』, 새물결, 2008.

토마스 샤프, 한창호·허문영 역, 『할리우드 장르의 구조』, 한나래, 1995.

헬렌 조페, 박종연·박해광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S. 프로이트, 오태환 역, 『정신분석입문』, 선영사, 1997.

Shaun Moores, *Interpreting Audiences : The ethnography of media consumption*, Sage, 1993.

3. 논문 및 평론

박미현, 「대중문화 콘텐츠 속 이형(異形) 캐릭터의 문화적 함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야담(野談) 수용 과정 연구」, 『인문학연구』 제 91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_____, 「텔레비전드라마의 기획과 구현 전략 - 2010년대 초반 미니시리즈를 대상으로 -」,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박선영,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 정신분석적 고찰」,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제18집, 한국라깅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박해경,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15.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 <뱀파이어 검사>와 <귀신 보는 형사 처용>을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한국극예술

학회, 2017.

안승범 · 조한기, 「자기 밖의 삶으로 읽히는 뱀파이어의 다른 양태들 -<드라큘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렛미인>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24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6.

이상범, 「청소년드라마의 구조유형 연구 : 소재, 캐릭터, 인물관계도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임소혜 · 김연수, 「뉴스의 실시간성과 유인가가 시청자의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생리심리적 반응과 뉴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9권 제2호, SBS문화재단, 2011.

Abstract

The Meanings of Others and the Anxiety of Subjects in the Television Drama <Orange Marmalade>

Park Sangwan

The television drama <Orange Marmalade> offers a text to show how subjects fulfilled their desire as they tried to reconfirm their self-identity, otherizing vampires and adolescents. Vampires and adolescents were depicted as others in the following patterns and meanings:

The vampires have given up bloodsucking and thus weakened with their transcendent abilities lost. They were promised to coexist with human beings for their sacrifice, but the promise has not been kept. Human beings control and manage the vampires like livestock and discriminate them in the application of law. In those aspects, the vampires can be seen as a metaphor of the weak and minor groups in the society subjected to discrimination. They have given up resistance against this irrational world themselves, and what is left with them is to dream of becoming human by seeking after the desire of subjects. Their dream is, however, beyond their reach, which makes them aware of their position as others further.

The adolescents make an attempt at becoming students and succeed in their attempt. The otherness of vampires disappears under the keyword of adolescents. As they are included in the self-justification procedure of the older generation represented by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however, they start a recognition procedure to be the right members of society just like the vampires. Once proving they are useful students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e older generation, the adolescents earn the possibility of holding the position of the older generation some day. The adolescents that fail to prove their usefulness as students, on the other hand, get to exist only in the reality outside the television drama. In the end, the vampires' failure in becoming human and the adolescents' success in becoming students show the catastrophic situation of subjects that can forget their ontological anxiety only through otherization.

Key words : adolescent, anxiety, catastrophe, desire, <Orange Marmalade>, others, subject, television drama, vampire

접수일: 2017년 4월 30일

심사기간: 2017년 5월 16일~6월 20일

게재결정: 2017년 6월 21일